

심미적, 기능적 목적을 위한 전악 보철수복 증례

이재휴*, 김현아, 문홍석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 보철학 교실

교합평면이란 이론적으로 절치의 절단면과 구치 교합면의 교두정이 접촉하는 가상면을 말하며, 실제로는 교합면의 평균적 만곡을 나타낸다. 전치의 만곡은 smile line, 발음, 전방 유도의 확립에 의해 결정되며 구치부 만곡은 curve of Spee와 curve of Willson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방유도시 구치의 이개를 허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저작계의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하다. PMS 방법은 구치부 치아의 대부분 혹은 전체를 수복할 때 교합 평면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Broadrick occlusal plane analyzer를 이용함으로써 진단모형상에서 초기 하악 교합평면을 결정하고 실제 치아삭제의 지침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최종보철물의 외형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50대의 남자 환자로 다수의 결손치아와 전반적인 치주염을 동반한 상태로 내원하였고 고르지 않은 교합평면이 관찰되었다. 먼저 기존 수복물을 제거한 후 smile line 및 하순의 위치를 고려하여 하악 전치부의 교합평면을 결정하였고 occlusal plane analyzer를 사용하여 구치부 교합평면 결정후 이에 따라 전악 임시치아를 제작하였다. 전치부 최종 보철물의 제작에는 customized anterior guidance table을 이용하였고 구치부는 고정성 보철물 및 임플란트로 수복하였다.